

섬유의 날 기념행사 11월11일 섬유센터 개최

제22회 섬유의 날 기념행사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로 11월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섬유패션업계 및 관련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섬유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성장 동력임을 알리기 위한 패션쇼와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개성공단 제품 전시전> 등이 열린다.

또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해외 경영을 활발하게 펼친 점을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김용복 아르테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국내 니트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온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윤정규 영텍스타일 대표이사와 이재수 동광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김병균 에스케이니트 대표이사와 박재홍 에이션패션 대표이사, 정운석 톰보이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섬유의 날은 1987년 11월11일 섬유산업이 단일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저널 2008/11/11>